

전사(戰士)가 아닌 기사(騎士)를 기르자!

우리 교육이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다. 학교에서의 진정한 '교육'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초·중·고등학교는 대학입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치는 통과 의례로 전락해버렸다. 정부 연구비와 언론사 평가에 눈이 멀어버린 대학도 건물 짓기와 등록금 올리기에만 집착하면서 교육을 외면해왔다. 이공계 대학의 경우는 더욱 열악하다. 이공계 대학원생은 교육보다 국가 연구개발과 벤처를 위한 노력 봉사에 전력 투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끊임없이 불거지는 현안에 대한 임시방편적 대응요법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수능 난이도 조절, 학교 다양화, 무상 급식, 학생 인권 조례로 해결될 일이 절대 아니다.

교육은 미래 세대 위한 사회적 투자


이제야 말로 당면한 현안이 아니라 우리 공교육의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내서 바닥부터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에게 공교육이 필요한 이유부터 따져봐야 한다. 만약 공교육이 필요하다면 무엇을 공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하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만 한다. 혹시라도 근원적인 진단과 처방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공교육을 완전히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에 따른 사교육에 맡겨버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

교육은 미래 세대를 기르기 위한 사회적 투자이다. 그런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 미래 세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가정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부모, 형제,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절과 도덕을 포함한 기초 인성의 교육은 가정의 몫이다. 비록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해 가정의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기초 인성 교육에 대한 가정의 책임은 절대 줄어들 수 없다. 부모가 포기해버린 기초 인성 교육을 학교가 채워줄 수는 없는 일이다.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책임은 학교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정교육만으로는 민주화된 과학기술 시대인 21세기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가 없다. 단순한 수준의 기초 인성만으로 현대사회를 원만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과학기술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적 능력과 함께 민주시민으로서 난해한 과학기술이 포함된 복합적인 사회 문제의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능력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능력과 자질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정에만 맡겨둘 수가 없다. 급격하게 진행된 산업화에 이어서 거센 민주화·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는 학교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아무리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학교 교육을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

오늘날 우리 학교 교육은 수많은 교육 철학이 뒤섞인 '멜팅 팟'이다. 한편에서는 창의성이 강조되는 미래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는 이해찬식 교육관이 있다.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선택권을 제공하고, 학습량을 줄여서 창의력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어설픈 교육관이 반영된 제7차 교육과정은 지난 10여 년 동



글_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본지 편집인
duckhwan@sogang.ac.kr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화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요넥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로 과학 커뮤니케이션협동과정 주임 교수 등을 맡고 있고, 대한화학회 차기회장이이다.

안 학교 현장을 극심한 혼란 상태로 만들어버렸고, 심각한 학력 저하와 학교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무한 경쟁을 강조하는 '일등주의'의 위력도 무시할 수 없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는 오로지 1등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모든 분야가 아니라면 적어도 자신이 선택한 한 가지 분야에서만이라도 반드시 1등을 해야만 하고, '소방 호스로 물을 쏟아 붓듯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서남표식 교육관이 바로 그런 것이다. 학생들에게 경쟁 압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학교의 존재 이유라는 비뚤어진 교육관에 시달린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교육기본법 제2조는 우리 교육의 이념을 '홍익인간' 육성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홍익인간은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인격과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원로 교육학자 정보모 선생의 해석에 따르면, 현대적 의미에서 홍익인간은 지정의체(知情意體)를 고루 갖춘 '전인'(全人), 남과 공공을 생각하는 '공인'(公人), 장인 정신과 창의력을 가진 '생산인', 스스로 책임과 자유를 행사하는 '자율인'으로 사물의 내재적 가치를 인식하고, 먼 과거와 긴 미래를 전망하는 역사적 현재에 충실하고, 특수에 뿌리를 두면서 보편을 찾아가고, 자연과 더불어 조화하면서 살아가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교육과정 바로잡고 교직 개방해야

이제 우리 교육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부와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학교를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 이념을 실현하는 진정한 교육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동의할 수 없는 극도로 제한되고 굴곡된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편견과 오만과 독선에 불과한 비뚤어진 교육관은 과감하게 씻어내야 한다. 우리와 교육 현실이 전혀 다른 선진국의 교육 철학을 무작정 베껴 오려는 교육학자들의 무모한 실험 정신도 거부해야 한다.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를 규정한 '교육과정', 교육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교사의 양성과 재교육', 학교 현장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교육 제도와 행정 체계'를 교육

기본법에 명시된 '홍익인간 양성'에 맞도록 바로잡아야 한다. 물론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 일은 엄청난 혁명을 통해서나 가능한 것이다.

교육과정을 바로 잡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 교육은 좁은 범위의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전사'를 양성하는 수준을 확실하게 넘어서서 현대 민주화된 과학기술 시대가 요구하는 '기사' 양성을 추구해야 한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핑계로 한 과도한 과목 쪼개기를 '융합형'으로 바꿔야 한다. '문법'과 '화법', '역사'와 '지리', '미분'과 '적분'을 별도의 과목으로 운영하는 현실은 학생이 아니라 사범대를 포함한 교사 양성 기관의 교직 확보를 위한 교묘한 술책일 뿐이다. 창의·인성교육을 핑계로 학교 교육을 빈 강통으로 만들어버리려는 교육학자들의 '교육과정중심주의'도 확실하게 포기시켜야 한다. 올해부터 도입된 '융합형 과학'이 좋은 시작이다. 국어, 사회, 영어, 수학, 사회가 모두 융합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학교 교육에 대한 과도한 기대도 버려야 한다. 학교 교육을 극도로 불신하면서도 학교에 대한 기대를 좀처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순된 현실이다. 학생들의 식습관에 대한 가정교육을 '영양 교사' 채용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학교 교육은 철저하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의 핵심 과목 중심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다른 교육은 가정의 선택에 따라 사교육 시장에 맡기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교직을 개방하는 일도 중요하다. 우리 사회의 교육 수준이 낮았던 과거에는 교사 양성을 위한 별도의 교사 양성 기관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 더욱이 다양성이 강조되는 21세기의 학교 교육을 폐쇄된 교사 양성 기관에 맡겨둘 이유가 없다. 폐쇄된 교사 양성 제도의 폐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고등학교의 물리가 아직도 19세기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도 교직의 개방이 필요한 근거가 된다. 교사 양성 기관의 기득권을 위해 우리 학교 교육이 언제까지나 전사 양성 교육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ST**